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요 15:16)

샬롬! 믿음의 식구들께!

그간 잘 지내셨죠? 선교지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아들 지노가 건강의 문제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1년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 학교의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주위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자원 봉사로 중학생 체육을 가르치며 지노와 유나를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지난 10개월이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 선교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몸소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학기 새로운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저는 이제 학교 일을 잠시 내려놓고, 더욱 확장되는 민다나오 선교 사역에 좀더 집중하려 합니다. 반면 제 아내 정진아 선교사는 이번 학기부터 선교사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보다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우선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학부모들이 학교의 빈자리들을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주변 아시는 분들 중에 영어로 가르치는데 가능하고, 1년간 단기 봉사 가능하신 분 아시면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축!!! 중학교 졸업~~



학교 섬김에 대한 감사의 시간..



무지 더운날... 아 시원하다~

제 아내 정진아 선교사와 저희 자녀들은 지역 학교나 마을들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강가루 북클럽'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중에는 산지 부족이나 모슬렘 지역에서 온 아이들도 종종 눈에 띄입니다. 이러한 지역 아이들에게 저희 선교사 자녀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등을 나누어 줍니다. 대부분 매우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라 그런지,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됩니다. 할렐루야!!!



벌떼처럼 몰려왔던 귀여운 아이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더불어 귀한 추억의 이벤트

이곳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는 필리핀 정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원은 민다나오 전역에서 오는 가난한 환자와 가족들을 선별하여, 진료비 지원과 한 두 주 정도 무료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도 모슬렘과 먼 산지에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다시 돌아온 후, 격주간 새로운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병들 또한 온전히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과 함께 병의 치료를 기도해주며...



복음 집회 후 빵과 음료를 나누어주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정부 병원을 통해 복음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필리핀 젊은 의사들을 제자 훈련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 공부 및 기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병원이 없는 산지 마을등에 방문하여 의료 진료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라는 이들이 더욱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산지 부족들과 접근 제한된 모슬렘 지역들 가운데 의료 봉사로 창의적인 복음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다야 부족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들을 이 의사들과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제 네트워크 사역 중 하나인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합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되고 귀한 새내기 의사들



산지 마을의 의료봉사



현재 진행되는 한 가지 더 나눌 사역은 복음 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다나오 각 지역에서 온 대부분 이십대의 젊은 청년들이 한달간 합숙하며, 성경 읽기와 암송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필리핀 동역자들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며 이 일들을 진행해가고 있는데, 모두 복음으로 변화하여 자기 지역의 복음 전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능한 경로가 이미 공립학교 교사들로 준비해왔던 청년들을 집중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더욱 필요한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면, 민다나오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50 번의 이야기들로 구성된 연대기적 성경 교육(storytelling)을 실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의 중반의 시기까지 왔는데, 다음 달부터 주변 일곱 학교들을 방문하여 현장 실습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기간 중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교정해주며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는 귀한 청년들



복음 전도자로 모두 헌신하는 시간

올 8 월초부터 앞으로 8 개월간 매달 한주씩 목회자 학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역 목회자들을 방문하며 짧은 세미나를 해왔지만, 여러 한계와 부족한 점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연합 전선의 네트워크를 위해선 아직도 귀하고 필요한 사역입니다. 단지 깊이와 질을 좀더 높여 매달 한 주간씩 합숙하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토론하며, 저와 참석자 모두가 좀더 성숙하고 실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충성되고 헌신된 목회자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자 학교를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연합하여 더욱 더 귀히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와 기도 제목

지노에 대한 감사한 내용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여러 열매를 보여주시며 저희를 격려해주시는 데, 이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 지난 학기 아이들의 학업, 졸업, 건강으로 인해 감사! 지노가 몇 개월 전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고등 학교 과정도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복음 학교와 제자 훈련들로 인해 감사! 의사와 교사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로 헌신한 엔젤(Anjel), 레아(Rea), 크리(Kri), 세토 (Seto)을 위해... 복음전도자로 훈련받고 있는 저스틴(Justine), 트위티 (Tweety), 크리스티 (Cristy), 아이리스 (Iris), 바네사 (Vanessa), 다니카 (Danica), 에릭 (Eric), 마리에테스(Marietes), 에델 (Edel), 미셸 (Michelle)을 위해.. 7 월부터 7 개 공립학교에서 훈련된 성경 교사들이 일주일 1 시간씩 30 번의 연대기적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매주 실습과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이 사역을 통해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8 월부터 시작될 민다나오 목회자 학교를 위해... 특별히 여러 준비와 하나님께서 참석해야될 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동역자 로이드와 메리의 안식년을 위해... 만다야 성경 번역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안식 기간을 통해 다시 새로와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다나오에서, 박상진, 정진아, 지노, 유나, 이안 드림